



## 다산 정약용의 『민보의(民堡議)』에서 나타나는 군사적 의미 고찰

신 효 승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

### 국문요약

다산 정약용은 조선후기 실학자로서 뛰어난 학문적 역량을 통해서 수많은 저작물을 완성하였다. 특히 화성의 축조에서부터 목민심서 등은 그의 높은 학문적 수준을 잘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높은 업적에 대해서 많은 연구자가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연구 성과를 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부분의 연구성과중에는 민중에 대한 다산 정약용의 의도가 조금은 도외시 되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다산 정약용이 국토방위 책략에 관해 자신의 견해를 밝힌 책에 해당하는 『민보의(民堡議)』는 이러한 민중에 대한 의도에 대해서 군사적인 측면에서 답을 해준 저작물이라고 생각한다. 그가 전라남도 강진에서 유배 생활 중이던 1812년(순조 12)에 『민보의(民堡議)』는 쓰여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 내용은 중앙의 군사적 현실보다는 당대 조선의 향촌 사회의 군사적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상 조선후기 지방의 향촌사회는 군사적으로 무방비 상태하에 있었다. 당시에는 중앙군으로서 훈련도감을 포함한 5군영이 존재하였다. 하지만 5군영은 오로지 수도 서울 방어만을 위한 중앙군이었다. 따라서 중앙군으로는 대부분의 지방을 보호할 수 없었다. 방치된 지방의 군사적 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시한 것이 바로 속오군(東伍軍)이다. 속오군은 임진왜란 이후부터 지방의 말단 행정구역마다 양반 및 양인(良人)들로 충원되도록 군제화하였다. 그러나 속오군은 처음부터 훈련되어 있지 않은 양민을 전쟁에 투입한다라는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또한 이러한 형식상의 군 조직마저도 세리들의 부정부패와 가렴주구 때문에 더욱더 실체가 없는 존재가 되었다. 결국 속오군은 이미 1800년대 훨씬 이전부터 실재하는 병력으로서가 아니라 단지 과세장부상의 허구적 숫자로서만 존재할 뿐이었다. 조

선은 일반 농민들을 경제적으로 착취하였으나 그들을 군사적으로 보호하지는 못하였다. 실제로 『민보의(民堡議)』 총설에 나와있는 것처럼 1811년 평안도의 홍경래란(洪景來亂)의 소문과 조만간 왜구의 침입이 있으리라는 유언비어가 1812년 남해안 지방에 퍼졌을 때 수 많은 지역 주민들이 도망가 흩어져 버리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다산 정약용은 유배지 강진에서 이러한 사태를 직접 목격하고서 향촌의 일반 농민을 위한 군사적 방위책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다. 그 결과 나오게 된 것이 바로 『민보의(民堡議)』라고 할 수 있다.

『민보의(民堡議)』의 가장 독창적인 특징중에 하나가 바로 민보에 입보하는 농민을 고려하여 작성되었다는 것이다. 사실 화성과 같은 방어 건축물과 민보의 가장 큰 군사적 차이점도 이러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화성은 둔(墩)을 비롯하여 포루(砲樓) 등에 당시 최신 무기라고 할 수 있는 불랑기와 같은 포를 설치하여 방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축조되었다. 그러나 민보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극히 제한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오히려 화기와 기묘한 무기에 해당하는 것은 구하거나 만들기 힘든 것이니 생략해야 한다고까지 이야기 하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성 자체의 축조에서부터 방어에 사용되는 무기까지 대부분이 입보한 농민들이 현장에서 구하고 제조할 수 있는 것들로 채워져 있다. 이러한 차이점은 바로 『민보의(民堡議)』가 민보에 실제로 입보하는 민중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산 정약용은 민보에 들어가 있는 민중을 현대적 개념에서의 향토 예비군과 같은 형태로 이해하고 있지 않았다. 그들이 농사짓고 살고 있는 마을에서 국가의 군사적 도움이 없는 가운데서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의도였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민보의(民堡議)』에서는 그 이전의 소모품적인 민중의 개념에서 민중 중심의 실천 가능한 향촌방위론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는 그러한 의도가 어떻게 구체화 되었는지 그가 방법론으로 제시하였던 것들을 바탕으로 고찰하였다.

## 머리말

조선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는 양란을 통해 그 이전과는 다른 군사 체계를 갖추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군사체계는 그 이전과는 다르게 서울을 중심으로 방어하기 위한 군사력 강화에 집중하게 된다. 조선후기의 대표적인 군사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훈련도감(訓練都監, 선조 무술년 1593년에 처음 설치함), 어영청(御營廳, 인조 갑자년 1624년에 처음 어영사(御影使)를 두고 효종 임진년 1652년에 처음으로 영으로 설치함), 총융청(摠戎廳, 인조 갑자년 1624년에 설치), 수어청(守禦廳, 인조 병인년 1626년에 설치), 금위영(禁衛營, 숙종 임술년 1628년에 훈련도감의 군총을 감하여 설치)은 그 설치 시기 및 명칭 그리고 그 임무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 전체를 방어하기 보다는 주로 수도 서울을 중심으로 방어하기 위한 수도 방위 중심의 중앙군<sup>1)</sup>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당시의 국제적 위협을 고려할 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다. 임진왜란 시기에 왜군은 불과 20여일만에 수도 서울에 입성하였다. 덕분에 당시 선조는 수도 서울을 버리고 의주로 향하였으며, 세자인 광해군은 분조를 이끌고 반대방향인 함흥으로 향하였다. 그리고 병자호란 시기에는 청군이 10여일만에 서울에 입성하여 당시 인조는 강화도로 피난할 시간조차 없었을 정도로 쉽게 국경은 돌파되고 수도 서울까지 너무나도 간단하게 함락되었다. 이런 두차례의 커다란 변란은 조선으로 하여금 중앙군을 국경과 지방에 광범위하게 분산하여 중앙군의 전력을 약화시키기 보다는 수도 서울에 집중해서 배치함으로써 그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군사전략을 취하게 된 것이다.

중앙 군제와 마찬가지로 지방 군제 역시 변화하게 되었다. 특히 조선 전기의 지방군제인 제승방략 체제는 통치체제의 동요와 더불어 임진왜란 시기에 일본군을 맞이하여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채 무너지고 말았다. 조선 정부는 전쟁을 수행하면서 국방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전기의 군제를 청산하고 임기응변의 조치로써 앞에서 언급한 중앙에는 훈련도감을, 지방에는 속오군을 설치하였다. 이후 5위제는 5군영제로 대체되었으며, 지방에서는 초기 정군의 호(戶), 보(保)가 수포군화 되면서 속오군이 핵심적인 군대로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지방의 대다수 민중은 외부의 침입에 대해서 별다른 방어수단이 없었다. 조선후기 지방군의 핵심전력에 해당하는 속오군은 사실상 군 조직이라고 하기보다는 행정적 조직에 더 가까운 조직이라고 할 수 있었다. 점점 등을 통해서 속오군은 수치상 엄청난 전력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말그대로 수치상의 전력일 뿐이었다.<sup>2)</sup> 그렇기 때문에 민중은 외부의

1) 김홍, 2001, 『한국의 군제사』, 학연문화사, 125쪽

2) 김홍, 위의 책, 158~160쪽

침입이 있을 때 중앙정부로부터 중앙군제든 지방군제든 어떠한 형태로든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처지였다. 물론 영장제 등을 통해서 중앙 정부에서 지휘관이 파견되어 그들을 지휘했지만 사실상 그것은 수도 서울을 방비하기 위한 시간을 벌기위한 소모전략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이렇게 방치된 민중을 보면서 다산 정약용은 민중에게 가장 현실적인 수단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게 되었다. 특히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건설되었던 화성과는 다르게 부족한 재정과 수단만을 갖고 있던 지방 향민에게 실현 가능한 방법을 다산 정약용은 군사적 입장에서 고찰하였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이렇듯 국가로부터 소외된 민중들을 위해서 다산 정약용이 제시하였던 군사전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다산 정약용의 민보론에 대한 연구는 『민보의(民堡議)』의 작성 배경, 내용, 의미, 영향, 성격에 대해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실제 민중은 소외되고 있었다. 특히 주로 군제사적 의미에 집중해서 다루어왔다.<sup>3)</sup> 그러나 이러한 군제사적 의미속에서 다산 정약용이 실제 가장 중요시하고 있었던 민중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민보의(民堡議)』의 내용은 향촌의 자체 방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sup>4)</sup>으로만 보기에는 그 내용이 군사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다르다. 여기서는 이러한 다산 정약용이 『민보의(民堡議)』에서 제시한 민보의 설치에서 운영까지 군사적 의미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다산 정약용의 민중에 대한 의도가 군사적 특징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고찰하도록 하겠다. 여기서 사용된 『민보의(民堡議)』 번역문은 1986년 국방부 전사편찬연구소에서 번역한 영인본을 사용하였다.

## 1. 『민보의(民堡議)』 내용에 나타난 군사적 의미와 민중의 관계

조선후기 대대수 민중에게는 왜적 등의 침입을 받았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군사적 수단이 거의 없었다. 중앙군 대부분이 수도 서울을 방비하는데 전력을 투입하고 있었고 지방군제인 속오군은 유명무실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민중은 왜적이 침입하였을 때 속수무책으로 약탈을 당하거나 아니면 죽음을 당하는 수밖에 없었다. 특히 해안가나 북방 변방지역은 침략군의 침입소식이 서울에 전해진 이후 정부에서 어떤 대응책을 내놓고 그런다음에

3) 박종천, 2008, 「『민보의』 필사본에 대한 연구」, 『다산학』 12호, 146쪽

4) 하명준, 2010, 「조선후기의 향촌방위실정과 민보론」, 『역사교육』 114, 365쪽

다시 침략군이 있는 곳으로 군을 내려 보낸다든지 아니면 속오군을 동원한 어떤 방비를 하던지의 대책이 강구되었기 때문에 그 동안은 군사적 초기 대응없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다산 정약용이 『민보의(民堡議)』 문답<sup>5)</sup>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민중의 방위를 책임지고 있던 이들은 국난이 발생하면 도망하기에 급급했다. 그렇기 때문에 민중에게는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로 하였다. 이러한 방안을 민보에 입보하는 구성원의 입장에서 다산 정약용은 『민보의(民堡議)』 작성하였다고 할 수 있다.

『민보의(民堡議)』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민보의(民堡議)』는 총 14개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민보의를 설치할 곳, 담장을 축조하고,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 그리고 그 편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기본적인 민보의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고 말미에는 대둔산 축성을 통해서 어떻게 실현해야 하는지 보여주고 있다.

## 1. 민보의 위치선정(民堡擇地之法)

『민보의(民堡議)』를 살펴보면 가장 먼저 민보의의 설치 위치에서부터 민보(民堡)에 입보하는 민의 여건을 고려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다. 다산 정약용이 축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화성(華城)과 전혀 다른 형태라고 할 수 있다. 화성(華城)은 중앙정부가 전적으로 대부분의 재정적 지원하고 목적자체와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위치선정에서부터 모든부분에 있어 다르게 접근하고 있다.<sup>6)</sup> 다산 정약용이 민보(民堡)의 위치 선정에 인용하고 있는 서애 류성룡의 민보(民堡)의 설치 장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난리를 피하여 산에 들어가는 자가 반드시 심산궁곡(深山窮谷)을 택해야 되는 아니다. 만약 마늘처럼 생긴 산봉우리로서 사망의 가장자리가 두절(杜絕)된 곳이면 비록 큰 길가에 위치하더라도 외적을 방어하는 데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sup>7)</sup>

이러한 서애 류성룡의 민보 설치 위치에 대한 의견은 당시 위정자들의 의도를 잘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산 정약용은 서애 류성룡의 견해와는 조금 다르게 설명하고 있다. 특히 무릉도원(武陵桃源)처럼 깊은 산속(深山幽谷)에 있는 곳<sup>8)</sup>은 오히려 지형이 부적당

5)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1989, 『민보의, 민보집설』, 국방부, 62~63쪽

6) 김동욱, 2002, 『실학 정신으로 세운 조선의 신도시 수원 화성』, 돌베개, 100~101쪽

7) 위의 책, 13~14쪽

8) 위의 책, 15쪽

한 곳 일곱 종류중에 하나로 꼽고 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이유로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62

깊은 산골짜기(深山幽谷)에 위치한 것이 부적당하다고 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예부터 장수들이 국가를 위한 성곽을 축조하는 데, 반드시 지리적 요충지를 택하는 것은 재론할 필요도 없다. 이는 비록 몇몇 피난하는 사람이라도 그 논밭과 가정을 버리고서야 경작을 할 수 없을 것이며, 식량과 반찬거리가 모두 떨어지고 외부와의 소식도 두절되어 드디어 새가 우는 소리에도 놀라게 될 것이다. 그리고 궁벽한 지역을 밟고 달려드는 좁도독의 노리는 바도 될 것이니 이는 반드시 죽음을 자초하는 땅이 될 것이다.<sup>9)</sup>

사실상 그 이전의 군사전략에서 민중이 차지하는 비중은 다산 정약용이 『민보의(民堡議)』에서 의도하는 바와는 전혀 상반되게 다뤄져왔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고구려 등을 통해서 잘 알려져 있고, 고려의 여몽전쟁기에도 줄곧 사용되어진 청야입보(淸野立保)<sup>10)</sup>와 같은 전략을 생각할 수 있다. 서에 류성룡의 민보(民堡)의 설치 역시 이러한 청야입보 전술의 전형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청야입보의 경우에는 어떤 면에서는 민중을 위한 전략처럼 이해될 수도 있다. 평상시에 성안에 식량을 저장해 두다가 적이 쳐들어오면 청야 즉, 곡식을 거두어 성안으로 입보하여 적이 지나갈때까지 기다리면 되다는 것이다. 이 전술의 군사적 의도는 기본적으로 현지에서 보급을 조달하는 당시의 군사적 시대상황을 고려할 때 적으로 하여금 심각한 보급 차질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심각한 보급 차질은 당연히 장기간의 전투수행을 불가능하게 한다. 정확한 표현으로는 침략군으로 하여금 조기에 공세 종말점에 도달하게 하여 어쩔 수 없이 퇴각을 할 수밖에 없도록 유도한다는 의미가 된다. 두 번째로 이렇게 만들어진 보(保)는 일종의 의병 거점으로서 운용된다는 점이다. 고려이후 줄곧 나타난 것처럼 적의 침략에 민중은 분연히 일어나 의병으로서 국가를 수호하였다. 또한 청야로 현지 보급이 제한되는 침략군은 본국으로부터 식량과 군사물자를 수송할 수밖에 없었다. 군사를 먹여 살리고 군사물자를 조달하기 위해서 다른 방도가 없었다. 그러나 보급로 중간 중간에 살아남아 있는 이러한 보(保)와 그 보를 바탕으로 활약하는 의병 부대는 침략한 적에게는 심각한 위협이 되었다. 더욱이 보급을 하는 부대는 전투병이라기보다는 노무자에 가까웠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었다. 때문에 보급로가 신장될수록 침략군은 의병으로부터 보급물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급부대에 더 많은 전투력을 할당

9) 위의 책, 17~18쪽

10) 장학근, 2002, 『삼국통일의 군사전략』,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32쪽

할 수밖에 없었다. 정작 전방에서 싸워야 하는 군인들이 길게 늘어선 보급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점점 후방으로 흡수되어 갈 수 밖에 없었다. 더군다나 현지 지형을 잘 아는 의병의 특성상 이러한 의병의 활동은 그 규모와는 관계없이 침략군에게는 심각한 위협이었다. 대표적으로 임진왜란시기에 의병이 왜군에게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었던 것도 대부분 이러한 군사적 특징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청야입보와 거점전략은 커다란 희생을 바탕으로한 전략이다. 그것은 바로 민중이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반을 파괴한다는 것이다. 시기가 어떻게 되었든 겨울철과 같이 들녘에 파종하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면 적의 보급 분야에 타격을 주기 위해서는 모든 수확물을 송두리째 불태울 수밖에 없는 작전이다. 표현상으로는 농산물을 거두어 들이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이미 땅에 뿌리내리고 있는 농산물을 거두어 들이는 방법은 오로지 불태우는 방법외에는 다른 수단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추수직전이라도 적에게 보급에 타격을 주기 위해서는 고의적으로라도 이뤄질 수 밖에 없는 전략이다. 현대와는 달리 근대 이전에는 대규모로 씨앗을 저장하기 어려웠다. 대부분이 한해 수확이후 그 일부분을 가지고 내년에도 다시 파종하는 형태로 살아가고 있었다. 이와같은 근대 이전의 농사 시스템속에서 청야입보전술은 대다수 민중에 해당되는 농민에게는 정말 엄청난 타격이 아닐 수 없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산 정약용도 이런 점을 우려하여 그 이전까지 좋은 장소로 분류되던 곳을 당연히 좋지 않은 피해야하는 곳으로 분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단순히 왕조의 안녕과 군사 전략적 효과만을 고려한다면 효과적인 군사전략이라고 생각되던 청야입보조차도 다산 정약용에게는 오히려 민중의 실제 생활을 고려하건데 피해야할 것으로 생각되어진 것이다.

## 2. 민보의 방어방법(民堡守禦之法)

민보의 방어방법에서 다산 정약용은 예상되는 적 공성병기를 설명하고 이에 대응하는 형태로 방어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대응할 수 있는 기구들에 대해서는 뇌석(擡石), 약탕(藥湯), 취회(吹灰), 분포(糞砲), 관환(串環), 천파(天耙), 지위(地蝟), 함마갱(陷馬坑), 벽력은(霹靂蘊), 현렴(縣簾), 애패(埃牌)를 제시하고 있다. 『용원필비』, 『훈국신조군기도설』, 『훈국신조기계도설』 등을 살펴보면 다양한 기구를 군사기구를 소개하고 있다.<sup>11)</sup> 하지만 다산 정약용이 ‘민보의 방어방법’에서 소개한 기구들은 여기에 거의 소개가 되어 있지 않다. 이 소개된 기구의 공통된 특징은 기본적으로 민보에 입보한 민중들이 스스로 손쉽게 제작할 수 있는 기구라는 점이다. 이러한 점이 특히 국가 핵심 방어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화성과

11) 강신엽 역주, 2004, 『조선의 무기 1, 2』, 봉명

같은 성곽 방어 방법과는 차별화 되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들면 총통과 같은 효과적이지만 기본적으로 많은 보급물자와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무기들이 사용된 화성(華城)<sup>12)</sup>과 대조적으로 뇌석(播石), 약탕(藥湯), 취회(吹灰), 분포(糞砲) 등은 전부 민중이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물자로 구성되어 있다. 오히려 “화기와 기묘한 기구들이 있기는 하지만 민보에서 마련하기 어려운 것이므로 생략한다”<sup>13)</sup>라고 되어 있을 정도였다. 대표적인 기구로서 적의 얼굴을 더럽히기 위한 분포(糞砲)라는 무기의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는 적의 면상을 더럽히는 것이다. 민보내에다 큰 독 네 개를 설치하고 변소를 만들되 상하와 남녀가 별도로 사용하게 한다. 분노가 모이는 대로 다른 물을 붓고 섞은 다음 물총을 이용하여 적에게 살포한다. 그 물총은 대나무 통을 잘라 끝쪽에 작은 구멍을 고 대나무통에 맞는 나무막대기 끝에 솜이나 형겔으로 싸맨 다음 통에다 끼워(주사기처럼) 오물에다 담구어 그 나무막대를 뒤로 빼어내면 그 속에 오물이 저장된다. 그러면(주사하듯) 적을 향해 그 막대를 누르면 물줄기가 멀리 간다. 만약 바가지로 퍼서 뿌리게 되면 오물만 허비하고 적에 대한 적중률은 떨어진다. 그리고 이 오물을 사용하려면 가죽옷(개가죽)이나 흑 기름을 먹인 한지 옷을 만들어 입으면 그 작업 후에 즉시 세척이 가능하다.

분포(糞砲)의 경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실상 복잡한 군사 물자적 보급이 전혀 필요없는 분노를 이용하고 있다. 그리고 민중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군사적으로 두 가지 중요성을 갖고 있다. 일단은 앞에서도 잠시 언급한 것처럼 총통과 같은 효과적이지만 보급과 사용에 있어 고도의 제작기술과 조련을 필요로 하는 무기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는 군사적 보급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고 사용하는 병사를 조련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서는 제대로 무장과 무기를 갖추지 않은 민중이 얼마든지 손쉽게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2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 레지스탕스가 독일의 전차를 상대함에 있어 가장 좋은 무기가 바로 화염병이었던 것과 비견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것에서 다산 정약용의 군사적 안목이 정확히 나타나는데 수성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누구나 대나무 통을 이용한 분포(糞砲)의 사용 할 수 있다. 민중이 훈련도감군과 같이 훈련되지 않더라도 쉽게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군사적 효율성을 극대화한 것이다. 사실 군무기와 전술 체계가 발달할수록 군인의 역할은 점점 더 전문화 되어간다. 단순히 농민에게

12) 조정기, 2001, 「화성의 방어시설과 총포」, 『진단학보』 91, 158쪽

13)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32쪽



낮 하나 손에 들려준다고 군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던 시대는 이미 오래전에 끝나 있었다.

이러한 다산 정약용의 민중을 위한 군사적 실용성은 취회(吹灰)에서 가장 극명히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취회(吹灰)라는 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14)</sup>

이것은 적의 눈을 못뜨게 독한 재를 뿌리는 것을 말한다. 먼저 가죽 주머니로 허풍비를 만들되, 새 주둥이처럼 부리를 길게 하고 그 자루의 길이를 1장이 넘게 하여 그 안에다 독한 재를 채운다. 그 다음 자루에 두 개의 다리를 만들어 그 다리를 두 손으로 잡고 적을 향해 바람을 불어 넣으면 가루가 날아가므로 눈물을 흘리면서 도망치지 않는 자가 없다.

『무비지』에 이렇게 적혀 있다.

“성을 방어할 때 대풍을 만나면 재를 뿌리는데 석회를 사용하면 적의 눈은 상하게 하지만 멀리 날아가지 않는 단점이 있다. 반면에 시회(柴灰)는 가벼워 잘 날아가기는 하나 독성이 약하여 눈은 상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석회와 시회를 섞어서 사용하면 대단히 효과적이다. 흑 황사에 섞어 쓰기도 한다.”

나는 들으니 ‘바닷가에서 나는 신회(蜃灰)가 석회보다 낫다.’고 한다. 그러므로 신회와 시회를 밀가루풀에다 섞어 건조한 후 작말하여 사용하면 좋다. 비상(砒霜), 초오(草烏), 날가(辣椒), 천초(川椒) 등도 좋은 재료이다.<sup>15)</sup>

우선적으로 다산 정약용은 민보에서 방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군사적으로 숙련되지 못했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숙련되지 못한 사람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사용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가급적 광범위한 적병에게 사용될 수 있는 기구와 방법을 채택하였다는 점이다. 사실 전장에서의 주된 특징중에 하나가 바로 공포를 느낀다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겁을 먹는다. 이것은 기본적인 상식이다. 이러한 공포는 결국 훈련이 덜된 사람일수록 전투효율을 저해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다.<sup>16)</sup> 민중에게 이런 공포는 극단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다산 정약용은 이런 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민보의(民堡議)』에서 그에 맞는 전술방법을 제시하였다. 사실 취회(吹灰)같은 무기는 그 특징으로 인해서 방자가 별다른 공포 없이 숨어서도 사용할 수 있고 또한 광범위한 적군에게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기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마치 현대전의 화학무기와

14)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33~34쪽

15)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33쪽

16) 존 하키프, 1988, 『전문직업군』, 연경문화사, 233~234쪽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재료에 있어서도 구하기 어려운 것이 아닌 해변가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조개껍질과 같은 것을 효율적인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것이 기본적으로 민보(民堡)를 방어하는 사람들이 전투에 익숙하지 않은 민중이며, 그들이 중앙 정부로부터 군사적으로 배제된 상태에서도 자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3. 민보의 편성(民堡編伍之法)

민보(民堡)는 그 입보하는 사람들의 특징상 훈련도감같은 군대 조직이 아니므로 다양한 계층의 남녀노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경우 통상적으로 정군(丁軍, 15세에서 55세 사이의 남성)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만 임무를 부여한다. 하지만 다산 정약용은 『민보의(民堡議)』 편성편에서 입보하는 모든 사람에게 일정의 임무를 부여하고 있다. 예를들면 천족의 여자들에게도 일정 임무를 부여하고 있다.

천족의 부인도 10명마다 방장 한명을 세워 그 대원들을 통솔하여 방아찝기, 키질하기, 물길어오기, 밥짓기 등의 일을 하게 한다. 그리고 15세 미만인 자는 나물캐기, 밥나르기 등의 임무를 수행하되 각 기대에 배속된다. 따라서 이들도 그 기대의 색에 따라 표지를 등에 붙인다.<sup>17)</sup>

여기에는 모든 계층의 성인 뿐만 아니라 15세 미만의 어린아이까지 계층과 성별에 따라서 무슨일을 해야하는지와 부대를 구분하여 표지를 등에 붙이는 등 구분되어 있다. 이러한 편성은 통상적인 방어전략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 처음부터 여성과 어린아이의 전투나 보급지원에 있어 전혀 고려되지 않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민보에 입보하는 사람이 다양하기 때문에 구성 특성상 가장 고려해야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다산 정약용은 대상을 민중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방어 부대를 편성하는데 있어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반영하였다. 여성도 군대에 가는 현대적인 전술관에서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일이지만 실제로 이러한 것을 조선시대 당시에 반영한다는 것은 전술적으로 혁신적인 발상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민병의 특성이 잘 발달한 서구 중세 도시에서도 어린아이나 여성은 통상 교회와 같은 곳에 안전하게 보호되는 것만을 고려할 뿐이었다. 방어 편성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못하였다. 여성이 전투에 참가할 수 있다는 발상은 2차세

17)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43쪽

계대전이후에나 가능하였다. 사실상 전쟁에 있어서 여성은 극히 중요한 몇몇 경우를 제외 하면 언제나 어디서나 비켜서 있던 인간활동이었다.<sup>18)</sup> 이러한 보호가 한편으로는 안전해보이고 인도적으로 보이지만 공자가 파괴된 성벽 등으로 들어와 일방적으로 보호되고 있는 어린아이나 여성을 공격하게 되면 오히려 그들은 방자측에게 혼란과 부담만을 가중하는 존재로 남겨질 수 있었다. 여성은 보호되어야 할 대상이지 전투를 수행하는 존재는 아니었다. 그러나 다산 정약용은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일정한 임무를 부여하고 또한 이들을 각기 다른 방어조직에 일부로서 편성시켜 놓고 있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혼란을 가중시키기 보다는 방어조직의 일원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시스템화 하였다고 할 수 있다.

#### 4. 민보의 식량조달(民堡支糧之法)

다산 정약용은 민보에서 머무는 시기를 대략 10여일이나 혹은 한 달 정도<sup>19)</sup>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 기간중에 사용될 수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준비물이다. 식량의 양과 다산 정약용은 당시 민중이 한 끼 식사로 먹던 양을 고려하여 보급에 필요한 기본적인 양을 계산하고 있다. 만약 전투가 벌어지지 않는다면 하루 1되를 기본량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달을 머문다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양은 한 사람당 30되를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일곱 날섬으로 1섬이 있으면 1명이 한 달을 버틸 수 있는 양이 된다. 이러한 체계적인 보급 방식은 우선적으로 당시 식생활을 기본바탕으로 하고 있다.

당시의 식생활을 살펴보면 우선 군영에서 지급하던 한 끼 식사에 대한 사료이다. 특히 『제승방략』에 따른 조선 전기 함경도 군대의 전시 식량 휴대량은 1일 3되가 기준이었고, 임진왜란 중 식량이 부족할 때 급식량은 1일 1~2되가 보통이었다. 선조가 임진왜란중에 지시하였던 내용중 군량에 대한 내용에서도 1인당 2.7升 즉 약 3되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나온다.<sup>20)</sup> 조선 후기에 작성된 『禁衛營事例』에서는 급식 규정에서 ‘장교와 군병을 막론하

18) 존 키진, 1996, 『세계전쟁사』, 까치, 120쪽

19)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45쪽

20) 宣祖 31卷, 25年(1592 壬辰 / 명 만력(萬曆) 20年) 10月 26日(壬子) 2번째기사

○備邊司啓曰: “天兵共計四萬八千五百名, 將領·中軍·千·把摠, 不在數內。 一日糧, 每一名一升五合, 馬二萬六千七百匹, 將領等官之馬, 不在數內。 每一匹, 日給料豆三升。 以此計之, 則四萬八千五百八十五名之糧, 一日約用七百二十石, 二箇月則八四萬三千七百三十石。 馬二萬六千七百匹之料, 一日約用豆八百一石, 二箇月豆四萬八千六十餘石矣。 本國與上國, 升斗石有大小多少之差。 上國, 以十升爲一斗, 十斗爲一石。 本國, 則以十五斗爲一石, 上國米一升五合, 準我國米二升七合, 豆三升約準十五升四合矣。 取考自義州至平壤直路十官, 及三縣等六邑, 所捧留穀之數, 大小米並五萬一千四百八十八石, 豆三萬三千一百二十七石。 雖各邑所儲多少不同, 抽西補東, 兵糧可支五十餘日, 而馬豆尤似不足。 未知近日所措米豆之數又幾何, 極爲悶慮。 假家、柴草、道路、橋梁等事, 司郎廳發遣, 并檢飭以來。” 上從之。

비변사가 아뢰기를,

고 쌀 1되와 새우젓 3작, 장 5작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것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주기로 지급되는 식사의 양인지에 대한 설명은 없으나 『제승방략』의 기준을 적용하면 1끼의 식사량으로 생각할 수 있다.<sup>21)</sup>

이외에도 당시 식생활에 대한 기록으로는 초려 이유태(1607~1684년)의 『庭訓』이 있다. 여기서는 17세기 당시의 식생활중 특히 기준량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유태는 기본적으로 주인 부부 2인과 奴와 婢 2인이 1년간 살아가기 위해서 책정된 곡물의 총량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기록하였다. 여기서는 주인 부부 두 사람의 일 년 양식으로 벼 300두가 책정되어 있고, 사환 남녀 奴婢 두 사람에게는 벼 210두, 보리 86.7두로 합 296.7두의 곡물이 책정되어 있다. 특히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은 奴와 婢에게 각각 책정된 1년치 곡물의 양을 통해 성인 남녀에게 할당된 식량의 차이를 가늠할 수 있다는 것이다. 奴에게는 벼 140두, 보리 60두로 총 200두가 책정되었고, 婢에게는 벼 70두, 보리 25.7두로 총 96.7두가 책정되어 있었다. 奴와 婢의 일년치 식량을 비교해보면 婢에게 훨씬 적은 양이 할당되어 있어서 奴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이 일년치 양을 가지고 奴는 6개월은 세끼, 나머지 6개월은 두 끼를 먹었으며, 婢는 5개월은 세끼, 나머지 7개월은 두끼를 먹었다.<sup>22)</sup>

또다른 기록으로 정조대 이덕무가 작성한 『靑莊館全書』에 따르면 우리나라 남자 장정인 경우 한 끼에 7홉을 먹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sup>23)</sup> 그리고 조선 후기의 학자 이규경(1788~

“중국군은 모두 합쳐 4만 8천 5백 85명인데 장령(將領)·중군(中軍)·천과총(千把總)은 이 숫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1일 양식이 1명당 1승(升) 5홉입니다. 말은 2만 6천 7백 필인데 장령 등의 말은 이 숫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1필당 1일에 콩 3승을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4만 8천 5백 85명의 군량이 하루에 대략 쌀 7백 20석이 들어 2개월이면 쌀 4만 3천 7백 30석이 들고 말 2만 6천 7백 필의 먹이는 하루에 대략 콩 8백 1석이 들어 2개월에 콩 4만 8천 60석이 듭니다.

본국과 중국의 되·말·석(石)은 크고 작은 많고 적은 차이가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10승을 1두(斗)로 치고 10두를 1석으로 치지만 본국에서는 15두를 1석으로 칩니다. 중국의 쌀 1승 5홉은 본국의 2승 7홉에 준하고 콩 3승은 대략 5승 4홉에 준합니다.

의주에서 평양까지 직로로 열 고을과 삼현(三縣) 등지의 여섯 고을에 받아들여 쌓아둔 곡식의 숫자를 조사해보니 쌀과 좁쌀이 모두 5만 1천 4백 88석이고 콩은 3만 3천 1백 27석이었습니다. 각 고을에 쌓아둔 것이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이리저리 맞추면 군량은 50여 일을 지탱해낼 수 있겠으나 말먹이 콩은 한층 부족할 것 같습니다. 요사이 준비한 쌀과 콩의 숫자가 또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가가(假家)·시초(柴草)·도로·교량 등의 일에 대해 본사 낭청들을 보내어 아울러 검직하고 오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 [참조] 국사편찬연구소 조선왕조실록 DB, <http://sillok.history.go.kr/main/main.jsp> (검색 9. 10)

이것을 계산하면 조선의 1석(石)은 비록 15두(斗)이었으나, 150승(升), 즉 1500홉(合)이었지만, 명나라 1석(石)은 10두(斗)이지만, 조선의 되로 180승(升), 즉 1, 800홉(合)이었다. 그러므로 중국의 1석(石)이 조선의 1석보다 3두(斗)가 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 명나라의 군사 1인당 1일 양식이 중국의 되로는 1승(升) 5홉(合)이지만, 조선의 되로 계산하면, 2.7승(升), 즉 270홉(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1) 국방일보, 「금위영사례」, 『한국의 병서』(출처 kookbang.dema.mil.kr 9. 10 검색)

22) 우인수, 1999, 『조선후기 한 사족가의 생활양식-초류 이유태의 庭訓을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12, 58-59쪽

23) 이덕무, 『창장관전서』, 권 58, 蟲業記 5, 一人朝夕食(우인수, 『조선시대 사족가의 생활양식』 재인용)

?)이 쓴 백과사전류의 책인 『五洲衍文長箋散稿』에는 한끼당 식사량을 좀더 자세하게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大男은 7홉, 中男은 5홉, 小男은 3홉을 먹으며, 大女는 5홉, 中女는 4홉을 먹는다고 하였다.<sup>24)</sup>

이렇듯 다산 정약용은 당시 민중의 삶과 전투시와 평상시 등 활동량을 기준(전투시 1일 2되, 평시 1일 1되 등<sup>25)</sup>)고려하여 민보의 내에서도 합리적인 보급기준을 정하였고 그것에 따라서 사전에 체계적인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제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 5. 민보의 영농(民堡作農之法)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산 정약용은 민보에 입보한 민중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특히 당시 우리 민중이 살아가는데 있어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산 정약용 스스로도 이런 내용을 민보(民堡)의 장점중에 하나로 영농을 겸할 수 있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sup>26)</sup> 사실 문답에서도 객이 우려하는 것처럼 민중은 국가를 이루는 근간이라기 보다는 국가를 위한 소모품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더욱 강하였다. 이러한 민중이 반기를 들거나 혹은 토병에 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무척이나 우려하던 것이 사실상 당시의 위정자들의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민보의(民堡議)』 영농편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처럼 입보를 하는 대다수가 농민인 까닭에 언제나 농사와 함께하는 것이 매우 중요시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들이 향후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한해 한철의 농사를 포기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산 정약용이 민보에 입보한 민중이 농사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방어 전술을 계획 및 구상하였다고 할 수 있다.

## 6. 민보의 야간경계(民堡警夜之法)

다음으로 『민보의(民堡議)』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은 야간경계에 대한 내용이다. 사실 다산 정약용은 여기서 당시 민중에게 가장 위협이 요소에 대해서 조금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다. 즉 그 이전 왜란과 호란에서 침략해온 주체와는 다른 약탈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의 강도’라고 보고 있다는 점이다.

24) 우인수, 앞의 논문, 58쪽

25)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43~44쪽

26)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47쪽

산골 조그만 민보에서는 한두 개의 기대(旗隊)로 편성되어 있으므로 외적이 굳이 침을 흘려 욕심내지 않으며 또한 이를 갖고 보복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적이 몇 십 리 밖에 위치하고 있어도 크게 신경쓸 필요가 없이 편안히 지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염려스러운 것은 오직 지방의 강도들일 뿐이다. 그 민보에 부자가 있다고 소문이 나면 반드시 난민들이 작당하여 몰려와 재물을 겁탈하려 할 것이다. 이 도적들은 경계병으로 관측하기가 어렵고 척후병으로도 탐지하기가 어렵다. 이는 오직 그 개개인이 삼가고 경계하여 지켜야 될 뿐이다. 그러므로 성벽이 있거나 없는 곳을 막론하고, 도적이 넘어올 수 있는 곳은 밤이면 꼭 지켜야 한다.<sup>27)</sup>

이는 그 이전 서애 류성룡 등이 갖고 있던 기본적인 방어전략과는 상반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상 대부분의 지배층이 왜란이나 호란과 같은 변란이 있을 때 의병과 같은 비선형적인 군사적 전력을 기대<sup>28)</sup>하고 있었다. 그리고 민보 역시 이러한 의병의 거점이 되는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것은 서애 류성룡의 ‘민보의 위치 선정요건’에서도 이런 의도가 잘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점은 일단 살아남은 후에나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는 점이다. 일반 지방 향촌에서 살고 있는 대다수 농민들은 사실상 이런 변란이나 혹은 작은 침략 행위에 대해서조차도 아무런 방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수도 중심의 중앙군으로부터 군사적 보호를 기대할 수도 없고, 지방군의 유명무실한 전력 역시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향촌에 살고 있는 민중은 정든 고향과 터전을 떠나 피난을 가거나 아니면 고향에 남아 약탈을 당할 뿐이었다.<sup>29)</sup>

“그 민보에 부자가 있다고 소문이 나면 반드시 난민들이 작당하여 몰려와 재물을 겁탈하려 할 것이다.”라는 내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변란이 발생하였을 때 중앙에서는 어떠한 보급과 치안조차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을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향촌의 농민들은 안팎으로 위협에 처해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일부에서는 다산 정약용이 『민보의(民堡議)』에서 제시하는 내용이 민보군의 상비전력화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국방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제시된 방안<sup>30)</sup>이라고 해석한다. 그러나 이는 영농편에서 나타나듯이 잘못된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다산 정약용은 민보에 들어가 있는 민중을 현대적 개념에서의 상비전력적인 향토

27)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49쪽

28) 宣修 26卷, 25年(1592 壬辰 / 명 만력(萬曆) 20年) 5月 1日(庚申) 9번째기사

○下罪己書于八路, 遣使召募義兵。

죄기서를 팔도에 내리고 사신을 보내어 의병을 불러모으게 하다

- [참조] 국사편찬연구소 조선왕조실록 DB, <http://sillok.history.go.kr/main/main.jsp> (검색 9. 10)

29) 하명준, 앞의 논문, 363쪽

30) 위와 같음

예비군과 같은 형태와는 다르게 보았다. 향토 예비군이라는 것은 현대적 총력전 개념에서 예비전력의 개념으로 형성된 것으로서 동원 가능한 자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실제로 현재의 예비군은 국가 비상사태하에서 현역 군부대의 편성이나 작전에 필요한 인원을 동원하기 위한 자원이거나 지역에 거주하면서 지역에 침투한 적을 소멸 혹은 소요에 대한 무장 소요 진압을 위한 것을 임무로 하고 있다.<sup>31)</sup> 민보에 입보하는 민중에게 다산이 부여하였던 임무를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임무 자체가 전혀 상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산 정약용은 『민보의(民堡議)』에서는 민중 중심의 실천 가능한 접근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7. 민보의 상호지원(民堡相救之法)

통상적으로 이러한 향촌 자위조직의 경우 나타나는 가장 큰 약점중에 하나가 바로 고립되어 있다가 각개격파를 당하는 것이다. 다산 정약용이 편성편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처럼 민보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인원 규모는 가장 작은 요보(公堡)의 경우 30명이며 가장 큰 원보(元堡)가 150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당시 향촌의 규모를 고려한 편성이겠지만 군사적 입장에서는 매우 소규모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소규모 조직으로 편성된 민보는 대규모 적군이나 유민들에게 쉽게 함락될 수 있었다.

민보의 상호 지원에 있어, 만일 어느 민보에 적의 공격이 1일간 계속되면 30리 내에 있는 민보는 빠짐없이 출동하여 지원해야 하고, 만약 3일간 계속되면 60리 내에 있는 민보는 빠짐없이 지원병을 파견해야 하며, 만약 5일간 계속되면 90리 내에 있는 민보는 모두 출동하여 지원해야 한다. 단 그 병력의 수에 대하여는 우선 거리가 가까운 곳일수록 많이 보내고 먼 곳일수록 적게 보낸다. 또한 적세의 크고 작음도

31) 향토예비군 설치법(시행 2011. 5. 19)

제2조(임무) 향토예비군(이하 "예비군"이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戰時), 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하에서 현역 군부대의 편성이나 작전에 필요한 동원을 위한 대비
2. 적(敵) 또는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아 무기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하 "무장공비"라 한다)이 침투하거나 침투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적이나 무장공비의 소멸(掃滅)
3. 무장 소요(騷擾)가 있거나 소요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무장 소요 진압(경찰력만으로 그 소요를 진압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제2호 및 제3호의 지역에 있는 중요시설·무기고 및 병참선(兵站線) 등의 경비
5.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 업무의 지원

- [참조] 국가법령정보센터, 향토예비군 설치법(인터넷 검색 9. 10)

도려하여 파견 병력수를 적당하게 가감한다. 이 상호 지원에 대비하여 평소에 각 민보끼리 상호 지원 규약을 정하여, 지원 장소(산봉의 이름과 마을 이름)와 지원 병력수를 기록하여 각 민보에 한 부씩 비치하여 두며 유사시에 시행한다.

모든 민보에서는 지역적으로 연결해 있는 각 민보끼리 짝을 만들어 유사시에 서로 협조하는데, 이러한 관계의 민보를 우보(耦堡)라고 한다. 우보의 상호 지원은 다른 이웃 민보에 비교하여 더욱 긴밀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들은 더욱 주도 면밀한 약조(約條)를 체결하여 순치(脣齒)와 보거(輔車) 같은 형세를 유지한다.<sup>32)</sup>

이러한 약점을 예상하고 준비된 계획이 바로 민보의 상호지원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다산 정약용은 여기서 상호 지원을 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등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있다.<sup>33)</sup> 군사적으로도 고구려식의 이일대노(以逸待勞) 전술<sup>34)</sup>과 같은 기능을 발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소규모 민보와 그리고 협력적인 지역방위 체계는 기본적으로 내선방어의 이점과 외선 포위의 이점을 골고루 갖추고 있다. 이러한 상호지원 방안은 민보의 약점을 완벽히는 아니지만 어느정도 보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민보가 각개격파되지 않고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는 구원해줄 것이라는 희망 역시 갖게 해주는 부가적인 기능을 갖고 있다. 병자호란과 같이 남한산성에 고립되어 있는 인조를 구하기 위한 근왕병이 남한산성 근처 광고산 전투와 같이 오히려 외선에서 구원하는 과정에서 각개격파 당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기본적으로 남한산성이 중요한 전략적 목표였기 때문에 청군 역시 장기간 적극적인 활동을 하였던 결과였다. 전략적 목표가 결여된 민보와는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 8. 민보의 적세 판단(民堡規寇之法)

이후에 나오는 내용은 특수한 지형이라고 할 수 있는 해도와 산사에서의 민보 설치에 대한 내용과 당시 다산 정약용이 주요 대외적 위협이라고 생각했던 왜구의 전술적 특징에 대해서 설명한 민보의 적세 판단이 있다. 다산 정약용은 왜구의 특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32)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52쪽

33)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51쪽

34) 김홍, 위의 책, 36쪽



모씨의 「일본고」에 다음과 같이 써어 있다.

“왜구는 호접진(蝴蝶陣)에 익숙하다. 호접진이라는 것은 적군과 대치하고 있을 때에 부채의 휘두르는 신호에 따라 진을 형성하는 것을 지칭한다. 지휘자가 부채를 가지고 휘두르면 여러 군사가 모두 칼을 뽑아들고 춤을 추며 공중을 향하여 칼을 번쩍이면서 휘두르면 상대방이 정신을 잃고 쳐다보면 그 기회를 이용하여 아래서부터 칼을 휘둘러 작살(斫殺)한다. 때로는 장사진(長蛇陣)을 형성하여 백각기(百脚旗)를 앞세워 휘날리면서 어관(漁貫)처럼 행진하는데, 이때 선봉과 후미에는 제일 용맹스럽고 검술에 능한 자가 서고, 중간에는 용(勇)자와 겁(慄)자가 혼성으로 편조를 짠다.”<sup>35)</sup>

이 내용을 정리하자면 첫 번째로 왜구는 호접진(蝴蝶陣)에 익숙하다라고 하고 있다. 단순히 문장적 표현을 그대로 이해하면 부채를 이용한 외형적으로 화려한 진이라고 오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내면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왜구가 도적의 목적을 갖고는 있지만 매우 잘 조련된 군대와 마찬가지로 지휘관의 지휘에 일사분란하게 운용된다는 점이다. 그것이 부채와 같은 작은 것일지라도 그러한 지휘가 모든 병력들에게 잘 적용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조직된 전투력이 실제로 전투가 벌어졌을 때 무서운 전투력을 발휘한다고 본 것이다. 상명하복의 군대적 특성이 잘 드러나고 있다고 본 점이다. 그 이전에 파악된 왜병의 특성은 조직된 군대라기 보다는 단병접전이 능한 개인기 위주의 군대<sup>36)</sup>였다. 그러나 다산 정약용이 바라본 왜구의 경우 정규 군사조직과 같이 일정한 대오를 형성하여 조직의 전투력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진을 사전에 준비하여 실제 운용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그 외에도 왜구의 전술적 특징에 대해서 매우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사실 이러한 분석이 다산 정약용이 직접 왜구를 상대한 이후에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은 아니지만 강진 지역에서 십여년간 유배되어 있으면서 주변 사람들로 부터 전해들은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이 느끼는 왜구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왜구의 모습은 당시 시대를 살고 있던 사람들이 느끼던 가장 위협적인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35)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56쪽

36) 宣祖 26卷, 25年(1592 壬辰 / 명 만력(萬曆) 20年) 5月 5日(甲子) 2번째기사

○不過五六千, 可以把守。 但今之軍兵, 皆農夫, 不習軍旅, 且小臣秩卑, 以臣領之, 則必潰散。 賊無他長技, 惟鐵丸短兵而已。 以生牛皮爲防牌, 則鐵丸可避矣。

- [참조] 국사편찬연구소 조선왕조실록 DB, <http://sillok.history.go.kr/main/main.jsp> (검색 9. 10)

## 9. 민보의 문답(民堡答客難)

74

마지막으로 다산 정약용은 가상의 존재인 객과의 문답을 통해서 민보의 문제점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먼저 답해주고 있다. 특히 당시 지방에 대한 중앙의 군사력 부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통렬히 비판하고 있다.

비록 민보의 대오 편입이 아니더라도, 근본적으로 소집을 담당할 사람이 없는데 누가 징집한단 말인가? 난을 당하면 병사·영장·수령 등이 모두 깊은 산골에 스스로 은신하는데, 한두명의 노복이 따르는 것도 천행인바, 이미 수족같이 움직이며 심부름하고 일할 사람이 없는데 누가 능히 징집을 하겠는가? 따라서 그대가 말한 단신으로 전장에 나가는 것이 민보의 죄가 아닌 것이다. 민보라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것이지 상대방의 것을 할애하여 이를 위하는 것은 아니다. 남쪽에서 마군을 별대(別隊)라고 하는데, 그 별대 자체도 보기 드문데 전마(戰馬)가 있겠는가? 또 보군은 속오군(束伍軍)이라고 하는데 이 속오군 자체도 보기 드문데 공용으로 쓰는 총기가 있겠는가? 군마가 비록 군적(軍籍)에 기록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모두 부자집의 마굿간에 있는 말이고, 총기도 비록 점검을 마친 장부에 기록되어 있으나 이는 모두 사냥꾼의 총을 빌려온 것이다. 훈련에는 총기를 빌려도 되지만 실전에 즐거이 빌려주겠는가? 어찌 말과 총만 그러하겠는가. 사람에 있어서도 이씨·김씨라 하는 것이 모두 허명이며, 대병이나 초병도 고용하여 명부에 기록한 것이다. 훈련에는 고용할 수 있으나 실전에는 즐거이 고용에 응하겠는가? 그리고 말이 진마이고 총이 진총이며 사람도 실물이라 하더라도 말안장에 올라앉으면 정신이 혼미해지고 대포 소리만 들으면 혼백이 달아나 몸과 손발이 말을 듣지 않을 텐데 그때 원망하면 무엇하겠는가? 그런데 산골에 숨어 있는 자를 염소를 끌어내듯, 돼지를 몰아내듯이 모아다가 죽음의 함정에 빠뜨리면, 그 처자와 부모들은 땅을 치고 하늘을 쳐다보며 울부짖으며 연못에도 뛰어들고 나무에도 목매 죽는 상황이 전개될 텐데, 어떤 성(城)인들 적과 싸워 이겨낼 수 있다고 말하겠는가? 모두 헛말에 불과한 것이다. 임진왜란 때 왜적이 부산, 김해, 상주 등을 함락시켰는데, 순변사 이일은 도망하기 바빴다. 이때 영남에는 좌우도에 감사가 있었고 좌우병사와 70여 개의 군과 현이 있었는데, 이들이 한명의 토병(土兵)도 명부대로 군사를 모집하였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다. 오직 이일이 상주 전투에서 관가의 창고를 열고 그 곡식을 풀어 산골짜기로 흩어진 백성 중에서 겨우 200여 명을 모집하였으나, 순식간에 전사하고 말았다. 이로 미루어 보면 이전에 조직되어 있는 모든 편제로써 외적을 맞아 싸운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하물며 지금은 나라의 기강과 백성들의 의리가 임진왜란때와 비교하

여 하늘과 땅처럼 현격한 거리가 있을 정도로 더욱 더 나빠졌는데 말해 무엇하랴. 갑자기 밤중에 천아성(天鵝聲)이 일어난다면 한 명의 토병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니 어찌하여 민보를 원망하겠는가? 만약 민보를 결성하게 허용한다면 보장과 보충이 모두 원수(元帥)의 병영에 예속되어 그 명령을 따를 것이다. 이렇게 되면 조정에서는 한 장의 사령장도 허비하지 않고 한 되의 군량도 소비함이 없이 1천명의 첨사(僉使)와 일만 명의 만호(萬戶)를 앞아서 얻어 국가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니 이보다 더 큰 이익이 또 어디있겠는가? 그리고 외적이 쳐들어와도 민보의 힘으로 안정되고 가족이 무사하여 며칠이 지난 다음 의리으로써 관군을 모집한다면, 그 때는 반드시 의기를 숭상하고 공명에 욕심이 생겨 분연히 응모하는 자가 있을 것이니 민보가 훌륭한 계책이 아니겠는가?<sup>37)</sup>

가상의 인물 객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사실상 당시 군사에 대한 다산 정약용의 비판이 잘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다산 정약용은 국경을 포기하고 수도 중심에 배치되어 있는 중앙군이 향촌에 침입한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있다. 또한 오지 않는 중앙군을 대신하여 지방을 지키기 위해서 조직한 속오군 역시 그 지휘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조차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숨기 때문에 절대 제대로 운용되지 않을 것임을 확신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조정에서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법률로 정하고 확인하고 있는 것 역시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그것이 허상이 아닌 실제의 군대라 할지라도 그들은 훈련된 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전장에서 전혀 쓸모가 없는 민간인 이라는 것을 “말안장에 올라앉으면 정신이 혼미해지고 대포 소리만 들으면 혼백이 달아나 몸과 손발이 말을 듣지 않을 텐데 그때 원망하면 무엇하겠는가?”라는 식으로 노골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강제로 징발되고 아무런 준비도 없이 투입된 사람들이 하나의 소모품처럼 죽어갔을 때 그들의 유가족이 느끼게 되는 슬픔과 절망을 잘 대변해 주고 있다.

다산 정약용은 당시 위정자들이 생각하는 양반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국가의 근간으로서의 민중을 바라보고 있다. 국가가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국경마저 포기한 상태에서 민중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별로 많지 않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 최소한 민보라는 자기 생존수단이 완성된 이후에야 의병과 같은 것도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의기를 숭상하고 공명에 욕심이 생겨 분연히 응모하는 자가 있을 것”이라는 표현에서도 나타나듯이 민중의 안녕이 보장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떤 의무를 강요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37)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62~63쪽

다산 정약용의 『민보의(民堡議)』는 당시 소모품으로만 인식되던 민중을 다시한번 그들 중심으로 살펴본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다.

## 맺 음 말

다산 정약용은 조선후기 실학자로서 뛰어난 학문적 역량을 통해서 수많은 저작물을 완성하였다. 특히 화성의 축조에서부터 목민심서 등은 그의 높은 학문적 수준을 잘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높은 업적에 대해서 많은 연구자가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연구 성과를 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부분의 연구성과증에는 민중에 대한 다산 정약용의 의도가 조금은 도외시 되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다산 정약용이 국토방위 책략에 관해 자신의 견해를 밝힌 책에 해당하는 『민보의(民堡議)』는 이러한 민중에 대한 의도에 대해서 군사적인 측면에서 답을 해준 저작물이라고 생각한다. 그가 전라남도 강진에서 유배 생활 중이던 1812년(순조 12)에 『민보의(民堡議)』는 쓰여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 내용은 중앙의 군사적 현실보다는 당대 조선의 향촌 사회의 군사적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상 조선후기 지방의 향촌사회는 군사적으로 무방비 상태하에 있었다. 당시에는 중앙 군으로서 훈련도감을 포함한 5군영이 존재하였다. 하지만 5군영은 오로지 수도 서울 방어만을 위한 중앙군이였다. 따라서 중앙군으로는 대부분의 지방을 보호할 수 없었다. 방치된 지방의 군사적 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시한 것이 바로 속오군(束伍軍)이다. 속오군은 임진왜란 이후부터 지방의 말단 행정구역마다 양반 및 양인(良人)들로 충원되도록 군제화하였다. 그러나 속오군은 처음부터 훈련되어 있지 않은 양민을 전쟁에 투입한다라는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또한 이러한 형식상의 군 조직마저도 세리들의 부정부패와 가렴주구 때문에 더욱더 실체가 없는 존재가 되었다. 결국 속오군은 이미 1800년대 훨씬 이전부터 실재하는 병력으로서가 아니라 단지 과세장부상의 허구적 숫자로서만 존재할 뿐이었다. 조선은 일반 농민들을 경제적으로 착취하였으나 그들을 군사적으로 보호하지는 못하였다. 실제로 『민보의(民堡議)』 총설에 나와있는 것처럼 1811년 평안도의 홍경래란(洪景來亂)의 소문과 조만간 왜구의 침입이 있으리라는 유언비어가 1812년 남해안 지방에 퍼졌을 때 수많은 지역 주민들이 도망가 흩어져 버리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다산 정약용은 유배지 강진에서 이러한 사태를 직접 목격하고서 향촌의 일반 농민을 위한 군사적 방위책에 대해서 고민

하게 되었다. 그 결과 나오게 된 것이 바로 『민보의(民堡議)』라고 할 수 있다.

『민보의(民堡議)』의 가장 독창적인 특징중에 하나가 바로 민보에 입보하는 농민을 고려하여 작성되었다는 것이다. 사실 화성과 같은 방어 건축물과 민보의 가장 큰 군사적 차이점도 이러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화성은 둔(墩)을 비롯하여 포루(砲樓) 등에 당시 최신 무기라고 할 수 있는 불랑기와 같은 포를 설치하여 방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축조되었다. 그러나 민보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극히 제한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오히려 화기와 기묘한 무기에 해당하는 것은 구하거나 만들기 힘든 것이니 생략해야 한다고까지 이야기 하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성 자체의 축조에서부터 방어에 사용되는 무기까지 대부분이 입보한 농민들이 현장에서 구하고 제조할 수 있는 것들로 채워져 있다. 이러한 차이점은 바로 『민보의(民堡議)』가 민보에 실제로 입보하는 민중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민보의(民堡議)』에서 제시하는 내용이 민보군의 상비전력화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국방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제시된 방안이라고 보는 경향도 있는데 이는 잘못된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다산 정약용은 민보에 들어가 있는 민중을 현대적 개념에서의 향토 예비군과 같은 형태로 이해하고 있지 않았다. 향토 예비군이라는 것은 현대적 총력전 개념에서 예비전력의 개념으로 형성된 것으로서 동원 가능한 자원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다. 실제로 현재의 예비군은 국가 비상사태하에서 현역 군부대의 편성이나 작전에 필요한 인원을 동원하기 위한 자원이거나 지역에 거주하면서 지역에 침투한 적을 소멸 혹은 소요에 대한 무장 소요 진압을 위한 것을 임무로 하고 있다. 그러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임무 자체가 전혀 상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다수 지방 향촌사회의 구성원인 농민들이 농사짓고 오랜기간 터를 잡고 살던 마을에서 국가의 군사적 도움이 없는 가운데서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의도였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산 정약용은 『민보의(民堡議)』에서 그 이전의 소모품적인 민중의 개념에서 진정한 민중 중심의 실천 가능한 향촌 방위론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참고문헌

78

### 참고 사료

- 民堡議 (국방부전사편찬연구소 번역본)  
牧民心書 (한국고전 번역원 DB <http://www.itkc.or.kr>)  
經世遺表 (한국고전 번역원 DB <http://www.itkc.or.kr>)  
朝鮮王朝實錄 (인터넷 조선왕조실록 DB, <http://sillok.history.go.kr/main/main.jsp>)  
承政院日記 (인터넷 승정원일기 DB, <http://sjw.history.go.kr/main/main.jsp>)  
西厓先生文集 (한국고전 번역원 DB <http://www.itkc.or.kr>)

### 단행본

- 강만길, 1986, 『丁茶山과 그 時代』, 민음사.  
강신엽 역주, 2004, 『조선의 무기 1, 2』, 봉명.  
김 흥, 2001, 『한국의 군제사』, 학연문화사.  
金友哲, 2001, 『朝鮮後期 地方軍制史』, 景仁文化社.  
김동욱, 2002, 『실학 정신으로 세운 조선의 신도시 수원 화성』, 돌베개.  
민승기, 2004, 『조선의 무기와 갑옷』, 가람기획.  
徐台源, 1999, 『朝鮮後期 地方軍制研究』, 혜안.  
오병홍 등, 2006, 『군사용어사전』, 육군본부.  
장학근, 2002, 『삼국통일의 군사전략』,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최홍규, 2001, 『정조의 화성건설』, 일지사.  
한영우, 1998, 『정조의 화성행차 그 8일』, 효형출판.  
귄터 블루멘트리트, 1994, 『전략과 전술』, 류제승 역, 한울 아카데미.  
리델하트, 1978, 『전략론』, 강창구 역, 병학사.  
존 하키프, 1988 『전문직업군』, 서석봉 외 역, 연경문화사.  
존 키건, 1996, 『세계전쟁사』, 유병진 역, 까치.  
존 키건, 2005, 『전쟁의 얼굴』, 정병선 역, 지호.  
클라우제비츠, 1991, 『전쟁론』, 강창구 역, 병학사.

## 논 문

- 김문식, 2003, 「정약용의 대외인식과 국방론」, 『茶山學』 4.
- 노영구, 2007, 「조선후기 성제 변화와 다산 정약용의 축성 기술론」, 『茶山學』 10.
- 노영구, 1999, 「조선후기 성제 변화와 화성의 성곽사적 의미」, 『진단학보』 88.
- 노영구, 2001, 「정조대 화성 축조와 성곽의 특징」, 『18세기 연구』 3.
- 盧大煥, 1994, 「19세기 전반 지식인의 對淸 危機認識과 北學8論」, 『韓國學』 76.
- 박종천, 2008, 「『민보의』 필사본에 대한 연구」, 『茶山學』 12.
- 徐台源, 2005, 「朝鮮後期 實學者의 防禦體制改革論」, 『역사와 실학』 28.
- 徐台源, 2002, 「19세기 지방군의 치안구조와 鎭營」, 『사학연구』 65.
- 徐台源, 2000, 「朝鮮後期 地方軍 運用과 營將制」, 『동서사학』 6.
- 신대진, 1995, 「朝鮮後期 實學者의 武器 및 軍事施設 改善論」, 『동국사학』 29.
- 우인수, 1999, 『조선후기 한 사족가의 생활양식 -초류 이유태의 庭訓을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12.
- 장필기, 2005, 「현릉원의 조성과 화성방위체계」, 『수원학연구』 창간호.
- 鄭景鉉, 1978, 「19세기의 새로운 國土防衛論 -茶山의 『民堡議』를 중심으로-」, 『韓國史論』 4.
- 鄭夏明 · 李忠珍, 1981, 「丁若鏞의 軍事防衛體制觀과 『民堡議』」, 『軍史』 3.
- 정연식, 2001, 「화성의 방어시설과 총포」, 『진단학보』 91.
- 정연식, 2001, 「화성 공심돈의 유래와 기능」, 『역사학보』 169.
- 趙 珖, 1976, 「丁若鏞의 民權意識研究」, 『亞細亞研究』 56.
- 趙誠乙, 1998, 「丁若鏞의 軍事制度 改革論」, 『京畿史學』 2.
- 최진욱, 2007, 「정약용의 民堡防衛論의 성격」, 『사학연구』 87.
- 차용걸, 1981, 「조선후기 관방시설의 변화과정」, 『한국사론』 9.
- 하명준, 2010, 「조선후기의 향촌방위실정과 민보론」, 『역사교육』 114.

## 기 타

- 국방일보, 『한국의 병서』 (출처 kookbang.dema.mil.kr 9. 10 검색)
- 국가법령정보센터, 「향토예비군 설치법」 (인터넷 검색 9. 10 검색)